

## 女大生の 거들 着用實態 分析

朴銀朱\* · 韓銀景

柳韓大學 女性敎養科 助敎授\*, 延世大學校 生活科學大學 衣類科學研究所 專門研究員

## Investigation of Girdle Wearing of Female College Students

Eun Joo Park\* and Eun Gyeong Han

Assistant Prof., Dept. of Women's Liberal Science, Yuhan College\*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Clothing and Textile Sciences, Yonsei University

### Abstract

In this study, girdle wearing was surveyed on the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Seoul satellite cities. Data were collected by convenient sampling method, and sample size was 252 subjects in 18 to 29 years.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5 parts: experience of girdle wearing, the preference of girdle type, degree of dissatisfaction/discomfort in wearing girdle, wear sensation evaluation of girdle fabrics, including demographic and anthropometric data. The results of surveys are as follows:

Experience of girdle wearing (season of wearing girdle, main intention of wearing girdle, frequency of wearing, body part to want to be shaped by girdle) was examined. Especially body parts to be shaped by girdle were in order of abdomen > hip > thigh > waist-hip sideline. Therefore, it would be considered that female college students want to care about the shape of abdomen or hip. The long leg panty type was most preferred among the girdle types. The reason of preference of long leg panty type was cost > easiness of putting on-and-off > shaping many body parts at once. For dissatisfaction/discomfort in wearing the commercial girdles, it showed in order of poor ventilation at sweating > static electricity with outer garment > difficult breathing due to pressure > deformation after laundering.

### I. 서론

패션제품은 소비자의 패션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구체적 대상이다. 패션제품을 단순히 물리적 요소들간의 결합으로만 본다면 소비자는 동일한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패션제품은 물리적 요소 뿐 아니라 서비스, 장소, 품위, 이미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 소비자는 서로 다른 패션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패션제품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정의할 때

핵심 속성(core attributes), 유형적 속성(tangible attributes), 무형적 속성(intangible attributes)의 3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안광호 외, 1999) 이러한 3가지 패션 개념 중에서 특히 핵심 속성과 유형적 속성을 강하게 갖는 의류제품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핵심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핵심제품이란 표적소비자가 기대하는 편익 혹은 혜택(benefit)을 말한다. 의류제품의 핵심 속성은 의복을 착용하는 기본적인 동기인 신체보호, 정숙, 심미적 기능 뿐 만 아니라 의복으로부터 추구되는 패션 이

미지, 개성, 동조성, 지위상징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실제로 소비자는 패션제품으로부터 추구하는 편익을 유형적 제품속성의 집합으로 구체화시킨 유형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유형적 속성으로는 품질 수준, 제품특징(소재), 스타일, 상표명, 패키지 등을 들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의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복의 종류와 그 착용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주된 의복의 기능이란, 착용함으로써 기후조건을 통한 체온조절의 역할과 생리 위생학적 기능과 외부 환경의 여러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신체의 보호 역할 등 보건위생상의 목적과, 형상이나 색채 등의 심미성이 요구된다.(심부자, 2000) 특히 내의의 일부로서 신체 보정이 주목적인 파운데이션은 의생활에 대한 견해가 변화되어감에 따라 그에 대한 개념도 많이 변화되고 재질이나 디자인 등이 착용 목적에 대응하도록 다종·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신체에 밀착되는 의복으로서 체형의 보정 효과 등 심미성에 관계되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파운데이션 가먼트(foundation garment)는 사회적 환경과 각 시대적 이상상의 체형과 복장의 실루엣에 따라 그 유형 및 소재 등에 변화가 생기며,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고대로부터 착용해오던 파운데이션 가먼트가 처음에는 청결이나 장식적인 의도에서라기보다는 여성의 인체미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에서 이용되었으나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어 땀이나 지방의 흡수 등 생리·위생적인 측면과 외관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정숙함을 표현하는 역할 이외에 체형 보정과 실루엣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최미성, 1992)

오늘날의 복장형태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활동성과 능률성의 요구가 높아져 간소화되고 있으나 인체를 미화시키기 위한 욕구는 계속 표출되고 있어 파운데이션 가먼트는 걸옷의 형태변화를 위한 본질적인 기능 수행과 더불어 당시에 추구하는 인체미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복장의 토대로서 구성방법이나 소재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최미성, 1992) 최근에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새로운 소재 및 기술개발로 인체의 생리기능을 원활히 해 주는 쾌적하고 기능성 있는 내의 및 라제리류를 소비자가 선호한다는 관

점에서 파운데이션은 핵심 속성과 유형적 속성을 강조해야 할 패션제품으로 부각되고 있다.(박미숙, 1993; 김정화 외, 2000)

신체를 이상적인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착용하게 되는데, 신체와 파운데이션의 형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입음으로써 파운데이션 자체가 신장되어 비틀어지는 등의 왜곡이 생기게 된다.(Sasaki, K. et al., 1999) 그러므로 파운데이션의 착용으로 인한 신장왜곡 및 인체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신체 보정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쾌적한 파운데이션을 설계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파운데이션, 특히 거들의 착용 경험, 구매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다.

선행연구(심희란, 1998; 김정은, 1991)에 의하면, 파운데이션의 착용동기로서 거들의 경우 생리시 안정감, 체형균형이 주목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들의 착용동기는 체형의 균형 및 보정을 위한 목적보다 생리시 활동에 안정감을 위해 착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거들의 착용동기인 체형 보정을 위한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거들의 착용시간은 외출 시와 생리 시 안정감을 위한 착용이 23%로 나타났으며, 체형정리를 위해 가끔 착용하는 것이 15.3%로 나타났다. 거들은 브래지어에 비해 착용빈도가 낮으며, 착용시간도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들의 착용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절별로 보면, 봄, 여름, 가을에는 브래지어만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겨울에는 브래지어와 거들을 모두 착용한다는 응답자가 4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봄, 여름, 가을에는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겨울에는 브래지어와 거들을 모두 착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계절별 기후에 따라 파운데이션의 착용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들의 경우, 선호유형으로는 팬티형, 하이 웨스트형 순으로 많이 착용한다고 하였다.(김정은, 1991)

또한 20대 여성의 파운데이션의 구매행동을 살펴보면, 파운데이션의 구매동기로는 낡아서 필요할 때와 세일할 때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에서는 필요에 의한 구매동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체형 면에서 보면, 표준체형은 파운데이션의 정보 원천으로 전시용

디스플레이와 신문, 잡지에서 정보를 얻는데 비해, 비만 체형은 판매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거들의 제품 평가기준으로는 착용감과 체형 보정성으로 나타났으며 20대는 착용감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들었다(김정은, 1991) 거들의 착용감과 의복압 연구(박미숙, 1993; 구양숙, 1983)에서 거들의 경우 대퇴부 끝부분의 압박이 매우 커서 피부가 가렵고 아프며, 특히 연결 부위가 매우 딱딱하다는 점과 끝부분이 말려 올라가는 점, 착용시 땀의 흡수성 및 통기성 문제, 촉감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거들의 보정 효과(구양숙, 1983)를 살펴본 결과, 신체치수가 중간집단의 경우 허리 부위의 보정 효과가 높은 반면, 배둘레 및 엉덩이 둘레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신체 치수에 따라 보정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며, 거들 착용자에 따라 보정을 원하는 부위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신체 보정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외모 향상을 위해 거들 착용이 많은 20대 성인여성을 소비자 대상으로 하여 거들의 착용실태를 파악하고 거들구매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구매 후 행동에 관하여 연령, 신체치수 등의 체형 특성 변수가 거들 착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주로 20대인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판 거들 착용 실태를 파악하고 시판 거들에 대한 선호 및 불만족 요인과 착용시 신체 불편도, 신체 치수별 거들 선호도 등 거들 착용과 선택 시에 20대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거들 구매 행동 전략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또한 체형 보정이 요구되는 부위를 알아냄으로써 쾌적하고 착용감 및 체형 보정 효과가 우수한 거들의 형태적·물리적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에 실태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시판 거들에 대한 착용 실태 및 착용시 주요 감성 평가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실시하였다.

##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으로는 서울 및 서울근교에 거주하는 여자 대학생 300명을 편의 표본 추출(convenient sampling)하였으며, 그 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252명을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수정·보완하여 본조사 문항을 작성하였다. 연구기간은 1999년 3월~2001년 2월까지였으며 본 설문지 조사는 1999년 6월~1999년 7월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거들 착용 경험에 관한 5문항, 거들 착용시 선호되는 형태 및 착용시 불만족 요인으로 거들 소재 특성 등에 관한 4문항, 거들 착용시 신체부위별 불편도 관련 3문항, 그리고 응답자 변수로 연령, 결혼상태, 4개의 신체치수 등 6문항으로, 총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신체 치수는 키 5개군, 몸무게 6개군, 허리둘레 6개군, 엉덩이 둘레 7개군으로 구분하였고 해당 신체치수군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2.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판 거들의 착용실태는 빈도, 백분율 및 누적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고, 신체부위별 불편도 평가는 7단계 리커트 형(Likert type) 응답을 얻어 분석하였는데 이때 응답점수는 1점에서 7점으로 갈수록 불편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들구매 행동과 외적변수와의 관계는 빈도, 백분율로 상관계수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개의 신체 부위간 상관계수, 신체 치수와 보정 희망 신체부위와의 상관계수를 양측 검증 유의수준 0.01과 0.05에서 Pearson 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 및 신장,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체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치 n=252

응답자 특성	통계치	빈도 (명)	백분율(%)
연령 (세)	18	54	21.4
	19	73	29.0
	20	58	23.0
	21	28	11.1
	22	13	5.2
	23	9	3.6
	24	6	2.4
	25	3	1.2
	26	4	1.6
	27	1	0.4
신장 (cm)	152.4 이하	3	1.2
	152.5~157.4	33	13.1
	157.5~162.4	100	39.7
	162.5~167.4	86	34.1
	167.5 이상	30	11.9
	계	252	100.0
허리 둘레 (cm)	60.9 이하	20	8.6
	61.0~63.9	36	15.5
	64.0~66.9	63	27.0
	67.0~69.9	72	30.9
	70.0~72.9	25	10.7
	73.0 이상	17	7.3
엉덩이 둘레 (cm)	78.9 이하	12	5.3
	79.0~82.9	27	11.9
	83.0~86.9	40	17.7
	87.0~90.9	60	26.5
	91.0~94.9	57	25.2
	95.0~98.9	21	9.3
	99.0 이상	9	4.0
계	226	100.0	
체중 (kg)	48.9 이하	70	27.9
	49.0~50.9	46	18.3
	51.0~52.9	42	16.7
	53.0~54.9	29	11.6
	55.0~56.9	28	11.2
	57.0 이상	36	14.3
계	251	100.0	

중 등 4개의 신체 치수 분포는 〈표 1〉과 같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모두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18세~21세에 해당한다. 이는 주로 대학 재학 1학년~4학년에 해당되는 연령대이다. 또한 신체 치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신장의 경우, 157.5~162.4cm 범위에 드는 여대생이 39.7%로 가장 많았고, 162.5~167.4cm 범위의 여대생들도 34.1%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허리 둘레는 67.0~69.9cm 범위가 응답자 전체수의 30.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엉덩이 둘레는 87.0~90.9cm와 91.0~94.9cm 범위의 응답자가 각각 26.5%, 25.2%로 많았다. 응답자 전체의 체중 분포는 48.9kg 이하가 27.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한국 표준체위조사(1992) 결과와 비교하면 응답자가 상당히 낮은 체중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전체 252명분의 응답 중에서 신체 치수가 빠져 있는 데이터는 체형특성 변수 분석을 실시할 때 통계처리에서 제외하였다.

## 2. 거들의 일반적 착용실태

여대생들이 일반적으로 거들을 착용하는 계절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로 거들을 착용하는 계절로는 겨울이 84.4%로 가장 응답이 많았고, 여름(7.8%) > 가을(3.1%) > 봄(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가을보다 여름에 대한 응답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거들 착용 후 신체 압박을 가하게 되는 불편함과 여름철의 땀 발생으로 인한 착용 시 불쾌함에도

〈표 2〉 거들 착용 계절 n=252

착용 계절	빈도(n)	백분율(%)	누적 백분율 (cumulative percent, %)
봄	4	1.6	1.6
여름	20	7.8	9.4
가을	8	3.1	12.5
겨울	216	84.4	96.9
기타	4	1.6	100.0

불구하고 거들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거들을 착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과 불쾌감을 감수하더라도 파운데이션류의 패션제품은 인체 정용(整容)을 통해 심미성 향상이라는 착용목적으로 입혀진다고 사료된다.

응답자들의 각 계절별 거들을 착용하는 회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에 거들을 착용하는 일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10일 정도 착용자의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고, 착용하지 않는다 (33.7%) > 11~20일 착용 (18.3%) > 21~30일 착용 (7.9%)로 나타나 겨울에는 1개월간 착용일수가 21~30일 착용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타 항목에서 특별한 날만 착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5.2%로 나타났는데, 이때 거들 착용 이유로는, 생리할 때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

의 결과(김정은, 1991)와도 일치하였으며, 여성들이 거들을 전혀 착용하지 않거나 생리기간에만 착용하는 경우도 1.6%로 나타났다.

착용일수가 1~10일 경우를 계절별로 비교해 보면, 겨울 > 봄 > 가을 > 여름 순으로 나타났으며, 11~20일 착용일수를 비교해 보면, 겨울 > 가을 > 봄 > 여름 순으로 나타났다. 21~30일에 해당하는 착용일수는 계절별 경향은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작은 백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겨울에는 7.9% 정도가 21~30일 동안 착용한다고 응답한 점으로 보아 다른 계절에 비해 거들 착용으로 인한 불쾌감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런데 거들 착용 주계절은 여름이 봄, 가을보다 높은 응답을 보이는데 반해 착용 회수는 여름이 가장 적은 착용회수를 보였다. 이는 4계절을 통틀어 거들 착용 회수를 고려한다면 여름에 거들을 가장 적게 착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을 볼 때 여름에도 착용하기에 좀 더 쾌적한 기능성 소재의 개발이

<표 3> 거들 착용 계절별 착용 회수 n=252

n=252

착용 계절	착용일수/1개월	빈도(n)	백분율(%)	누적 백분율 (cumulative percent, %)
봄	0	179	71.0	71.0
	1~10	57	22.7	93.7
	11~20	13	5.1	98.8
	21~30	3	1.2	100.0
여름	0	196	77.8	77.8
	1~10	42	16.6	94.4
	11~20	12	4.8	99.2
	21~30	2	0.8	100.0
가을	0	176	69.8	69.8
	1~10	56	22.3	92.1
	11~20	15	7.9	98.0
	21~30	5	2.0	100.0
겨울	0	85	33.7	33.7
	1~10	101	40.1	73.8
	11~20	46	18.3	92.1
	21~30	20	7.9	100.0
기타 (특별한 날)	없다	113	44.8	44.8
	응답	139	55.2	100.0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계절적인 차이가 어떤 착용목적에서 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들 착용의 주목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거들 착용의 주목적으로는 겉옷 맵시를 위하여 (47.6%) > 기타 (21.4%) > 몸매 보정을 위하여 (17.5%) > 살찌지 않기 위하여 (4.8%) 등의 순서로 겉옷 맵시와 몸매 보정이라는 주목적을 갖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들이라는 의복 항목이 인체 정용의 주목적으로 착용된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여대생들에게 신체 부위 중에서 거들 착용을 통해 보정하고 싶은 부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5>는 거들 착용시 보정하고 싶은 특정 신체 부위 각각

<표 4> 거들 착용의 주목적 n=252

착용 주목적	빈도(n)	백분율(%)	누적 백분율 (cumulative percent, %)
무응답	16	6.3	6.3
몸매 보정을 위하여	44	17.5	23.8
겉옷 맵시를 위하여	120	47.6	71.4
살찌지 않기 위하여	12	4.8	76.2
적당한 구속감이 혈액순환에 좋아서	6	2.4	78.6
기 타	54	21.4	100.0

<표 5> 거들착용에 의한 신체 보정 희망부위 n=252

보정 희망 신체부위	빈도(n)	백분율(%)
엉덩이	무응답	157 62.3
	응답	95 37.1
배	무응답	127 50.4
	응답	125 49.6
옆선 굴곡	무응답	231 92.0
	응답	20 8.0
허벅지	무응답	187 74.2
	응답	65 25.8
기 타	무응답	250 99.2
	응답	2 0.8
없다	무응답	243 96.4
	응답	9 3.6

에 대해 응답한 것을 비교한 것이다. 기타 부위나 보정 부위가 없다고 대답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보정하고 싶은 부위가 배 (49.6%) > 엉덩이 (37.1%) > 허벅지 (25.8%) > 옆선 굴곡 (8.0%)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로부터 거들 착용을 통하여 배를 눌러주고 엉덩이를 위로 올려 주는 기능성 거들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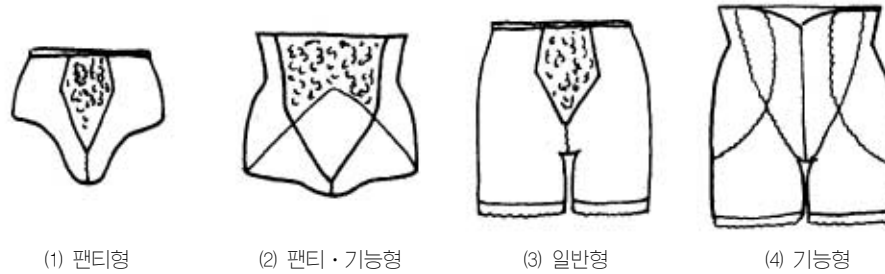
거들을 구입할 때 좀 더 신체에 맞는 거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들을 맞춰 입는지를 조사하였다. 거들 구입방법으로는 시판되고 있는 거들을 사 입는다 (92.9%) > 사서 입기도 맞춰 입기도 한다 (3.6%) > 항상 맞춰 입는다 (0.8%) 순으로 나타나 맞춰 입는 소비자들의 비율이 4.4%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은 거들 착용을 통하여 신체부위를 보정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맞춰 입는 소비자가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욕구는 좀 더 잘 맞는 거들 착용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 3. 거들에 대한 선호 및 불만족 요인

#### 1) 거들형태에 따른 선호도

여대생 소비자가 선호하는 거들의 형태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일반형 (그림 1-(3))이 59.9%로 가장 많았고, 팬티형 (그림 1-(1))이 18.3%, 팬티·기능형 (그림 1-(2))은 11.1%, 기능형(그림 1-(4))이 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 부위 중에서 거들 착용을 통해 보정하고 싶은 부위가 배와 엉덩이 부위라는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정하고자 하는 배와 엉덩이 부위를 동시에 보완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인 일반형 거들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거들과 실제로 구매하게 되는 거들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호하는 거들 형태와 주로 구입하여 착용하는 거들 형태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경우는 선호하는 형태를



(1) 팬티형 (2) 팬티·기능형 (3) 일반형 (4) 기능형

<그림 1> 거들의 형태

실제로도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선호하는 거들 형태와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거들 형태와의 교차표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형을 선호하는 경우는 역시 일반형을 주로 구입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착용하는 거들의 형태를 보면, 일반형(64.3%) > 팬티형(16.7%) > 팬티·기능형(10.7%) > 기능형(8.3%)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거들 유형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실제로 착용하는 거들도 역시 선호하는 거들을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착용 거들 형태와 선호 거들 형태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유의수준(양쪽 검증) 0.01에서 살펴본 결과, .819라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선택 거들을 선호하는 이유

자신이 선택한 거들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호 거들 형태와 선호하는 이유를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호 거들 형태별로 가장 응답자가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팬티형, 팬티·기능형, 그리고 일반형의 경우는 '활동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에 가장 많은 응답을 표시하였고, 기능형은 '내가 원하는 부위의 몸매를 보정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거들 형태적 측면에서 비교하면, 허리 위 부분까지 신체를 보정할 수 있는 팬티·기능형과 기능형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부위의 몸매를 보정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으로 보아 허리 위 부분까지도 보정하고자 하는 응답자들은 기능형의 형태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거들인 일반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활동하기에 편할 것 같아서' > '내가 원하는 부위의 몸매를 보정할 수 있어서' > '입고 벗기 편할 것 같아서' > '입었을 때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 > '가능한 한 많은 부위를 동시에 보정할 수 있어서' > '값이 싸기 때문에' 순으로 선호 이유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반형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좀 더 활동적이며 착탈이 용이하고 동시에 여러 신체 부위를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값이 싸기 때문에'라는 항목에

<표 6> 실제 착용 거들 형태와 선호 거들 형태와의 교차표

n = 252

		선호하는 거들 형태				계 n(%)
		팬티형	팬티·기능형	일반형	기능형	
실제 착용 거들 형태	팬티형	36	3	2	1	42 ( 16.7)
	팬티·기능형	4	20	2	1	27 ( 10.7)
	일반형	6	3	147	6	162 ( 64.3)
	기능형	0	2	0	19	21 ( 8.3)
소	계	46	28	151	27	252 (100.0)

<표 7> 선호 거들 형태별 선호 이유

n = 252

선호 이유	팬티형		팬티·기능형		일반형		기능형	
	무응답	응답	무응답	응답	무응답	응답	무응답	응답
입었을 때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	42	4	22	6	135	16	18	9
활동하기에 편할 것 같아서	9	37	17	11	80	71	23	4
내가 원하는 부위의 몸매를 보정할 수 있어서	42	4	18	10	121	29	15	12
값이 가장 싸기 때문에	46	0	28	0	141	10	27	0
입고 벗기가 가장 편할 것 같아서	42	4	25	3	133	18	27	0
가능한 한 많은 부위를 동시에 보정할 수 있어서	46	0	27	1	138	13	19	8
기 타	45	1	28	0	134	17	27	0
계 (%)	46 (18.3)		28 (11.1)		151 (59.9)		27 (10.7)	

응답한 거들 유형은 오직 일반형이라는 점을 통하여 볼 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음으로 인한 대량생산 디자인으로서 가격도 다른 형태들보다 낮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거들용 옷감에 대한 불만족 사항 및 착용 시 요구되는 옷감의 성능

좀 더 쾌적하고 기능성을 갖기 위하여 요구되는 거들용 옷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로 거들 착용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느꼈던 거들 소재용 옷감에 대한 불만족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는 파운데이션의 구매시 평가기준 항목을 요인 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 즉 기능적 차원, 미적 차원, 질적 차원으로 구분했을 때 거들의 경우 3가지 요인 가운데 기능적 차원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 차원에서는 보건 위생성이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이라는 선

행연구(김정은, 1991)를 토대로 하여 거들 착용시 보건 위생적 기능 및 관리적 측면에서의 불만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표 8)

각 불만족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 이상인 항목을 보면, '통풍이 되지 않아 불쾌하였다(51.6%)' > '마찰부위에 보푸라기가 잘 생겼다(50.8%)' > '겉옷감과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하여 불쾌하였다(50.0%)'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항목들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것은 거들을 착용할 때 착용자가 느끼는 불만족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족 요인들에 대하여 거들용 옷감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거들용 옷감의 제품 성능 요구 조건을 조사하였다(표 9) 각 항목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통기성이 좋아

<표 8> 거들용 옷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 요인

n = 252

착용 시 불만족 항목	무응답(%)	응답(%)
겉옷감과의 마찰로 정전기가 발생하여 불쾌하였다.	126 (50.0)	126 (50.0)
밀착되는 착용부위에서 땀발생이 많았다.	129 (51.2)	123 (48.8)
통풍이 되지 않아 불쾌하였다.	122 (48.4)	130 (51.6)
거들을 입었을 때 압박감이 너무 커서 호흡하기가 곤란하였다.	143 (56.7)	109 (43.3)
세탁후 형태가 변형되어 새것으로 다시 구입해야 하였다.	135 (53.6)	117 (46.4)
마찰부위에 보푸라기가 잘 생겼다.	124 (49.2)	128 (50.8)
세탁하기가 불편하였다.	134 (53.2)	118 (46.8)
기 타	143 (56.7)	109 (43.3)



〈표 9〉 거들용 옷감의 제품 성능 요구 조건

n = 252

거들 착용 시 요구되는 옷감 성능	무응답(%)	응답(%)
살에 닿는 촉감이 좋아야 한다.	172 (68.3)	80 (31.7)
신축성이 좋아서 활동하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104 (41.3)	148 (58.7)
땀 흡수를 잘 하여야 한다.	190 (75.4)	62 (24.6)
통기성이 좋아야 한다.	102 (40.5)	150 (59.5)
땀이나 세탁에 의해 색이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244 (96.8)	8 ( 3.2)
착용 시 지나치게 압박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202 (80.2)	50 (19.8)
땀이나 세탁에 의해 신축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220 (87.3)	32 (12.7)
기 타	251 (99.6)	1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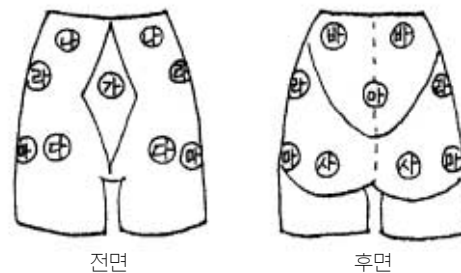
야 한다'가 59.5%로 거들용 옷감 성능들 중에서 가장 요구되는 성능으로 나타났으며, '신축성이 좋아서 활동하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58.7%) > '살에 닿는 촉감이 좋아야 한다' (31.7%) > '땀 흡수를 잘 하여야 한다' (24.6%) > '착용 시 지나치게 압박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19.8%) > '땀이나 세탁에 의해 신축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12.7%) > '땀이나 세탁에 의해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땀이나 세탁에 의한 변색 또는 신축성 저하 등 관리적 성능 조건에 대해서는 대학생 소비자의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들착용이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의복제품에 비해 매일 착용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제품 성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고려되는 요건으로 파악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거들이 인체의 정용 효과를 위해 착용되는 의복 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들용 옷감의 통기성, 신축성이 중요 제품 성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통기성이 착용시의 쾌적감을 결정하는 옷감의 성능으로서, 계절에 상관없이 거들을 착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의복의 쾌적 성능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신축성은 거들이 갖는 기본 목적인 인체 보정 효과 및 착용 시 압박감과 관련이 있는 성능으로서, 소비자가 중요하게 느끼는 거들의 물리적 성능이라고 파악되었다.

4. 거들의 착용 시 신체 불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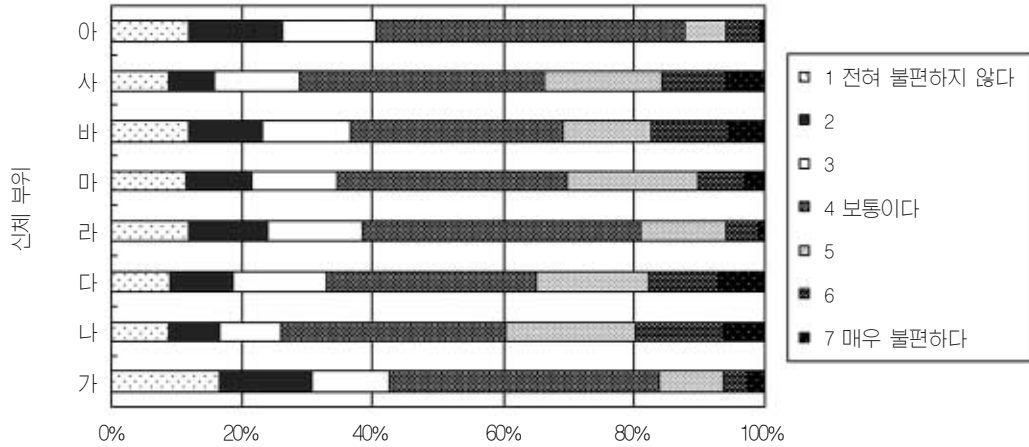
여대생들의 거들 착용 경험을 토대로 하여 거들을

착용하였을 때 느꼈던 각 신체 부위의 불편 정도를 다음 〈그림 2〉의 신체 부위별로 7단계 리커트형(Likert type) 응답으로 얻은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각 거들을 착용하였을 때 신체 부위별로 불편하게 느끼는 정도를 단계별로 표시하여 해당 단계의 응답자 수를 전체 응답자 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측정 척도는 1번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이며 7번의 '매우 불편하다'에 가까워 갈수록 해당 신체 부위가 불편함을 의미한다. 각 측정 척도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1~3번 척도를 '불편하지 않다'의 집단이라 명명하고, 5~7번 척도를 '불편하다'의 집단이라 명명하여 각 척도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을 합하여 각 '불편하지 않다' 집단과 '불편하다' 집단의 응답 비율 차이를 비교한 것이 〈그림 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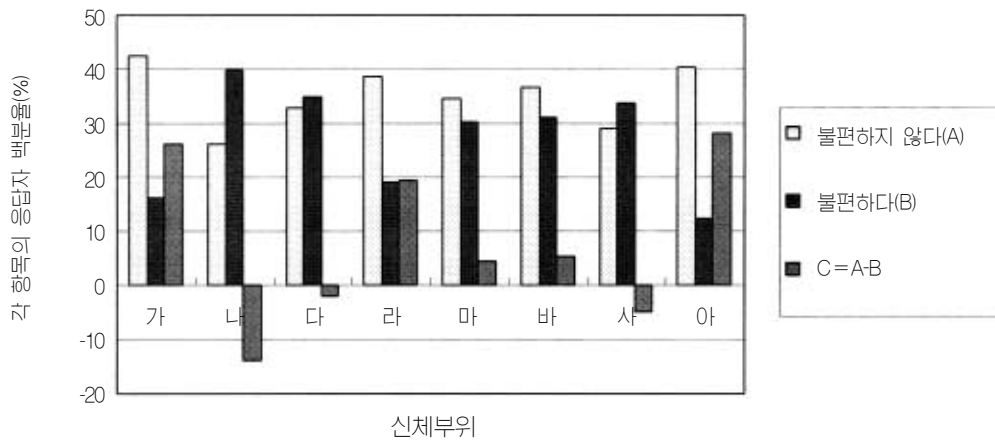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보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신체 부위 ㉠과 ㉡ 부위 그리고 ㉢ 부위가 불편하다는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표시한 그림이 〈그림 4〉이다. 〈그림 4〉에



〈그림 2〉 거들 착용후의 신체부위



<그림 3> 거들 착용 시 신체부위별 불편도 응답 백분율



<그림 4> 거들 착용 시 신체부위별 불편도 응답 분석

서 C의 값이 (+)이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면 해당 신체 부위가 거들을 착용하였을 때 불편하게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체 부위 ㉔는 앞허리 부분으로 배 부위와 연결되어 배의 형상과 상관성이 높은 부위이다. 실제로 거들을 착용함으로써 배 부위의 압박을 받게 되면 불편한 부위로 지각될 수 있다. 불편한 정도가 앞허리 부위보다는 낮지만, 거들 착용으로 인하여

여 힘업(hip-up) 효과가 있는 엉덩이 부위(㉕ 부위)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거들을 착용한 상태에서 앉을 때 압박 또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위가 ㉕ 부위이다. 따라서 거들 착용으로 인하여 인체가 동작을 하게 될 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위가 앞허리·배 부위, 엉덩이 부위, 대퇴 부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 부위별로 C값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㉔

부위 > ㉔부위 > ㉕부위 > ㉖부위 > ㉗부위 > ㉘부위 > ㉙부위 > ㉚부위로 나타났는데, ㉕부위는 대퇴부 옆선, ㉖부위는 뒤희리선, ㉗부위는 배둘레 옆선, ㉘부위는 배둘출 부위, ㉙부위는 뒤희리밑 부위이다. 이 부위들은 ㉔의 앞허리 부위, ㉕의 엉덩이 부위, 그리고 ㉖의 대퇴관절 부위보다는 불편도가 덜 하지만 거들 착용 시 불편한 부위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거들 착용 시에 앞의 허리조임 부위와 앞 뒤 고관절부위의 불편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5. 신체 치수별 거들의 선호도

4개의 신체 치수(키, 몸무게,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보정 희망 신체 부위, 선호 거들 등의 변인들에 대하여 5% 유의수준에서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우선 응답자들의 신체 치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특정 신체변수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다른 신체변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장 항목은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체중과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체중은 허리 둘레 및 엉덩이 둘레와 0.700, 0.661의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가장 선호되었던 거들이 일반형이라고 볼 때 거들 착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변수인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간의 상관계수도 0.727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허리 둘레가 큰 여성은 일반적으로 엉덩이 둘레가 큰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신체 치수들간에 이러한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여도 신체 치수에 따라 거들 착용 시 보정하고 싶은 신체 부위는 다를 수 있다. <표 11>은 신체 치수별 보정하고 싶은 신체 부위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장은 거들을 착용할 때 보정하고자 하는 부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허리 둘레의 경우는 허벅지와 옆선 골곡과 정적 상관을, 그리고 엉덩이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엉덩이 둘레도 배와 허벅지 부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체중과 허벅지도 역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착용자의 신장이 선호 및 착용 거들 형태에 영향을 주는 신체 변수가 아니며, 허리둘레가 큰 사람은 허벅지와 옆선 골곡 부위를 보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 오히려 엉덩이 부위의 보정 욕구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엉덩이 둘레가 큰 사람일수록 배와 허벅지 부위를 보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이 큰 사람일수록 허벅지 부위를 보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착용자의 신장이 선호 및 착용 거들 형태에 영향을 주는 신체 변수가 아니며, 허리둘레가 큰 사람은 허벅지와 옆선 골곡 부위를 보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반면 오히려 엉덩이 부위의 보정 욕구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엉덩이 둘레가 큰 사람일수록 배와 허벅지 부위를 보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이 큰 사람일수록 허벅지 부위를 보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표 10> 각 신체 치수 항목간 Pearson 상관계수

	신 장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체 중
신장 Pearson 상관	1.000	.201*	.247*	.404*
유의확률(양쪽)	.	.002	.000	.000
N	252	233	226	251
허리 둘레 Pearson 상관	.201*	1.000	.727*	.700*
유의확률(양쪽)	.002	.	.000	.000
N	233	233	226	233
엉덩이둘레 Pearson 상관	.247*	.727*	1.000	.661*
유의확률(양쪽)	.000	.000	.	.000
N	226	226	226	226
체중 Pearson 상관	.404*	.700*	.661*	1.000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
N	251	233	226	251

\*: p < 0.01 (2-tailed)

<표 11> 신체 치수와 보정 희망 신체부위와의 Pearson 상관계수

	신 장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체 중
배	-.106	.114	.134*	.047
유의확률(양쪽)	.093	.083	.045	.455
N	252	233	226	251
허벅지	.044	.168*	.146*	.145*
유의확률(양쪽)	.485	.010	.028	.021
N	252	233	226	251
옆선 골곡	.008	.146*	.014	.012
유의확률(양쪽)	.903	.026	.830	.852
N	251	232	225	250
엉덩이	.060	-.133*	-.072	-.035
유의확률(양쪽)	.340	.043	.282	.577
N	252	233	226	251

\*: p < 0.05 (2-tailed)

타났다. 허벅지 부위를 보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가 크고 체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하복부 신체가 전체적으로 큰 사람일수록 특히 허벅지 부위를 보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이 밝혀졌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로 20대인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판 거들 착용 실태를 파악하고 시판 거들에 대한 선호 및 불만족 요인과 착용시 신체불편도, 신체 치수별 거들 선호도 등 거들 착용과 선택 시에 20대 소비자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거들을 주로 착용하는 계절로는 겨울이었으며, 또한 겨울에는 한달에 20~30일 정도 착용하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들 착용의 주목적으로는 겉옷 맵시를 위하여와 몸매 보정을 위하서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신체 부위 중에서 거들 착용을 통해 보정하고 싶은 부위를 알아본 결과, 배 > 엉덩이 > 허벅지 > 옆선 골곡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장 선호하는 거들의 형태는 일반형 > 팬티

형 > 팬티·기능형 > 기능형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선호하는 거들 유형을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선호 거들 형태와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팬티형, 팬티·기능형, 그리고 일반형의 경우는 '활동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에 가장 많은 응답을 표시하였고, 기능형은 '내가 원하는 부위의 몸매를 보정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거들 착용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느꼈던 거들 소재용 옷감에 대한 불만족 사항을 조사한 결과, 낮은 통풍성과 마찰부위의 보푸라기 발생, 정전기 발생을 지적하였다. 불만족 요인들에 대하여 거들용 옷감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을 조사한 결과 역시 통기성과 신축성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땀이나 세탁에 의한 변색 또는 신축성 저하 등 관리적 성능 조건에 대해서는 대학생 소비자의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거들을 착용 시 각 신체 부위의 불편 정도를 조사한 결과, 신체 부위 중에서 장골과 대퇴골을 둘러싸고 있는 외포 부위와 각 관절을 연결시키는 부위의 불편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덟째, 신체 치수와 보정하고 싶은 신체 부위별 상

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신장은 거들을 착용할 때 보정하고자 하는 부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허리 둘레의 경우는 허벅지와 옆선 굴곡과 정적 상관을, 그리고 엉덩이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엉덩이 둘레도 배와 허벅지 부위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체중과 허벅지도 역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상 여대생의 거들 착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시판 거들의 착용 성능 및 착용후 인체 보정 효과 평가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결과로부터 신체 변인인 체형이 거들의 구매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표 충성 구매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파운데이션 제조 업체와 유통업체는 소비자 특성변인에 맞는 제품 개발과 구매자인 성인여성에게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거들의 앞으로의 연구는 조사 대상자의 신체만족도 및 신체평가변인과 파운데이션 구매행동과의 관계 및 파운데이션 만족도와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안광호, 황선진, 정찬진 (1999), 패션마케팅, 수학사, pp. 219-221.
- 2) 심부자 (2000), 의복과 환경, 교문사, pp. 95-122.
- 3) 최미성 (1992), 장년층 여성의 체형변화에 따른 파운데이션 가먼트 제작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박미숙 (1993), 거들의 의복압과 착용감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정화, 이선영, 홍경희 (2000), "중년 여성의 감성 Brassiere 개발(제1보)-소비자 요구분석을 기초로 한 제품 디자인 요소 추출", 한국의류학회지, 24(5), pp. 714-723.
- 6) Kazuya Sasaki, Masayoshi Edamura, Masakazu Takei, Takao Furukawa, Hiroko Shimizu and Yoshio Shimizu (1999), "動畫像解析によるファウンデーションの歪み分布計測", 日本家政學會誌, 50(4), pp. 389-393.
- 7) 심희란 (1998), "성인여성의 파운데이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브래지어와 거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정은 (1991), "시판 화운데이션제품에 대한 불만족요인 연구-브래지어와 거들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구양숙 (1983), "Girdle의 착용감과 의복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